



제 21호 22.11.04.(금) 발행

JBC HANOI

뉴스레터

전라북도 1호 해외통상거점센터(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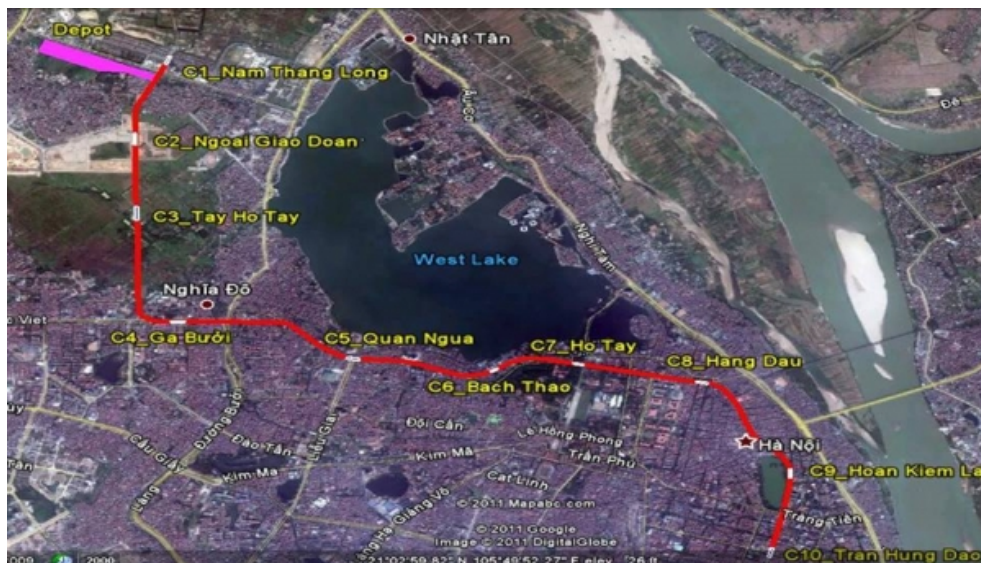
JBC HANOI

베트남 HOT ISSUE

하노이시, 지하철2호선 완공 2027년으로 연장 검토

하노이시가 지하철2호선 남탕롱-쩐흥다오(Nam Thang Long-Tran Hung Dao) 노선의 완공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도 16조1000억동(6억4800만달러)을 정부예산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인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연장과 사업비 증액방안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2008년 사업이 시작된 남탕롱-쩐흥다오 구간은 당초 2015년 완공목표였으나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2027년으로 무려 12년이나 늦어지게 됐다. 사업비도 19조5000억동(7억8500만달러)에서 35조6000억동(14억3300만달러)로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레 쯡 히에우(Le Trung Hieu) 하노이도시철도관리위원회(MRB) 부위원장에 따르면, 2016년에 사업비 및 준공일 조정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지하철 C9역 위치 문제로 결정이 미뤄졌으며, 이후 몇차례의 회의 끝에 C9역은 호안끼엠호수(Hoan Kiem) 인근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베트남, 글로벌 불확실성에 FDI 유치 감소

코로나19 사태 여파 및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FDI 유치 총액(신규, 추가, 출자·주식매입)은 224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투자인증서 발급은 1570건, 99억3000만달러로 23.7% 감소했다. 반면 자본금 조정(추가)은 880건, 87억4000만달러로 23.3% 늘었으며, 자본출자 및 주식매입은 2997건, 39억7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투자유치와 달리 이기간 FDI 실집행액은 174억5000만달러로 15.2% 증가했다. 전체 103개 투자국 가운데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53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어 일본 42억달러, 한국 39억달러, 중국, 홍콩, 덴마크 순이었다. 특히 한국은 투자규모는 3위였지만 투자건수는 가장 많았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베트남 HOT ISSUE

팔도·오뚜기, 베트남서 라면 전쟁

베트남 시장 놓고 팔도와 오뚜기의 경쟁이 뜨겁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베트남에서 한국 식품 업체들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팔도는 지난 2006년 팔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라면을 선보였다. 2012년 하노이 북서쪽 푸토(Phú Thọ)에 있는 공장을 세웠다. 이곳 공장에서는 현지 라면 브랜드 코레노(Koreno)를 비롯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만1860㎡ 규모의 해당 공장은 3개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연간 3억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 오뚜기도 베트남 시장에 라면 공장을 세우며 현지 입맛 잡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매출도 9050억동(약 520억원)으로 지난 2018년(4720억동·약 270억원)에 비해 91.74% 증가했다. 지난 2007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라인을 설치한 이후 2009년 첫 시험생산을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라면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The Gure (<https://www.theguru.co.kr/>)



베트남 수출 성장세,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둔화 전망

올해 마지막 달과 내년까지 베트남의 대외무역 활동이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현지 당국이 전망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 뉴스(Vietnam News)는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상품 공급 차질과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촉발된 주요 경제체의 침체 리스크 등 여러 요인으로 베트남의 대외무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베트남 주요 수출 시장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현지 필수 수출품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당국 관계자는 이는 곧 직물·신발·가구 등 제품의 수출 성장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4분기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락폭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 1~9월 베트남의 대외 무역액은 5천585억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으며 무역 흑자는 65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https://economist.co.kr/>)



베트남 HOT ISSUE

베트남에서 쏟아지는 한국 위조상품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21년 현지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모조품, 출처 불분명 상품, 원산지 위조 사건은 4만1375건이고 이에 대한 벌금으로 약 1800만 달러가 징수됐다. 위조 형태가 더욱 발전하고 정교해지면서 시장 관리 및 밀수 방지가 시급한 현지 상황이다.

위조상품과 모조품은 가장 많은 상표권 침해행위가 이뤄지는 위조형태다.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도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상표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까지 이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할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법에 따라 130~215달러(300만~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은 화장품,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 외국 기업 의존도가 높아 그만큼 외국계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을 중심으로 짝퉁 제품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 작년에는 한국산으로 가장한 배가 시장에 등장했는데, 이 상품들은 한국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었다. 또한 시장과 수입 과일가게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배의 가격은 kg당 11~15달러(27만~35만 동)였지만 가짜 배는 사회공유망서비스(SNS)에서 3.9~4.3달러(9만~10만 동)에 판매됐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21년 1월 발표한 '2021년 국가 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이미지 평가에서 베트남은 95%의 긍정 평가를 얻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한류의 인기를 등에 업고 판매되는 위조상품과 한류 편향 제품 또한 증가하고 있다. 먼저 소비재, 화장품,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 다양한 위조상품들이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수요가 급증했던 마스크의 경우 한국 식약처 인증인 'KF'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베트남 업체들이 많았지만 이 업체들은 'KF 인증기업'으로 검색이 불가능했다. 마스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베트남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함께 늘어났지만 이 역시 위조상품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광동제약의 '우황청심원'의 경우 유사제품 중 유일하게 베트남 내 합법 유통이 승인된 한국 기업 제품이지만 현지에서는 이를 모방한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위조 방지 스티커 등 다양한 구별법들이 인터넷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법의 공개가 더욱 정교한 위조품을 만들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슈가 됐던 '무무소'를 필두로 소비재,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에 편승한 저질 제품들이 여전히 유통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최영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베트남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및 보호 수준이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 국제 협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법 개정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지재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침해유형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베트남은 상표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은 적시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베트남 유망산업/트렌드

베트남 전기차 시장 동향 및 전망(feat. 빈패스트)

베트남 전기차 시장 동향

베트남 등록소(Vietnam Registry)에 따르면 2020년 등록된 베트남 자동차는 총 40만 7,487대이며, 이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1,000대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이 중 EV는 1%이며, 나머지 99% 모두 하이브리드 (HEV/PHEV) 자동차이다. 베트남 주변 국가의 경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0년 국가별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각 9.0%, 1.3%가 전기차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0.3%에 불과해 베트남과 상황이 유사하다. 다만 베트남은 정부에서 2022년 3월부터 전기차 등록비 면제, 특소세 50% 감면 등 구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베트남의 유일한 전기차 제조사인 빈패스트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입고 2022년 말부터 전면 전기차 생산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빈패스트(VinFast), 2023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집중할 계획

베트남 최대 민영기업 빈그룹(Vingroup)의 자동차 자회사 빈패스트(VinFast)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2021 LA 모터쇼에서 2종의 전기차(VF8, VF9)모델을 공개했으며 올해초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2022에서는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지 5년째인 올해까지만 내연기관 모델을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전기차에 올인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빈패스트는 2017년 6월에 설립된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제조기업으로 2018년 파리 모터쇼Lux A2.0(세단)과 Lux S2.0(SUV) 모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고, 베트남은 인구가 1억명에 육박하고 경제 성장으로 신형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내수시장이 두텁고, 자동차 보유비율은 1,000명당 21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미국 790대, 태국 204대)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했음('21.12월~'22.5월차량 등록세50% 감면 등)

또한 빈패스트도 애국주의에 기반한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전기차 생산을 위하여 빈패스트는 최근 모든 생산라인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배터리팩 공장 설립,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빈패스트의 전기차신모델(VF8, VF9)의 예약 주문량이 6만대(1분기기준)를 넘어서며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점이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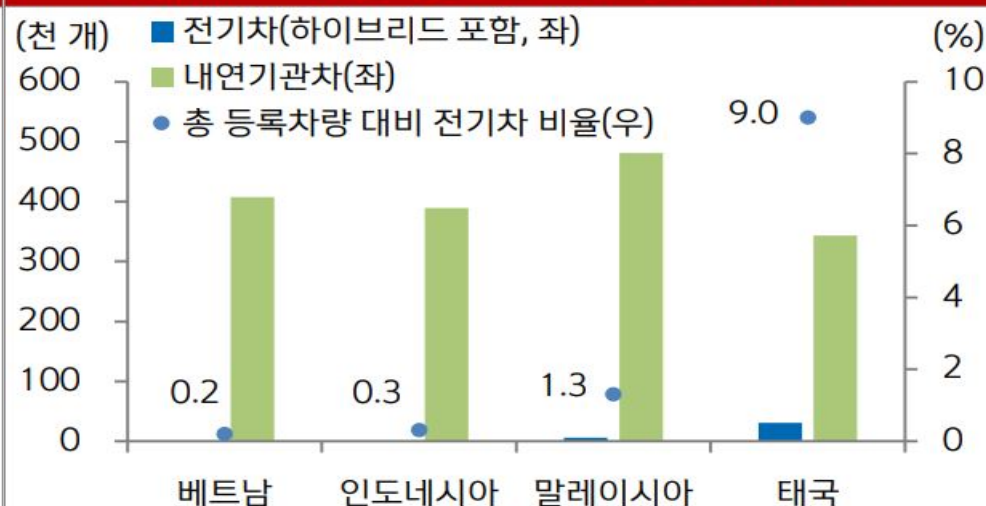
잠재력이 높은 내수 시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규모 지난 5년간 연간30만대 내외로 여전히 취약한 편이어서 빈패스트는 북미·유럽지역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24년 상반기 까지 최대40억달러를 투자하여 美노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임. 또한 올해 7월 美 캘리포니아주에 6개의 쇼룸을 오픈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50개 이상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독일 25개, 프랑스 20개, 네덜란드 5개 등).

최근 전기차 관련 공급망의 脫중국여파로 제조업기반이 우수한 베트남경 제에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IRA(인플레이션완화법) 발효로 전기차보조금 혜택에 제약이 발생 할 수있는점 등은 리스크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빈패스트의 주요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

모델명	VF8	VF9
가격	\$40,700 ~ 48,000	\$55,500 ~ 61,000
배터리	82 ~ 87.7kWh	92 ~ 123kWh
주행거리	397 ~ 467km(WLTP)	419 ~ 590km(WLTP)
사진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베트남 전기차 시장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차종	현행	2022.3.1~27.2.28	2027.3.1~
9인승 이하 전기차	15%	3%	11%
10~16인승 전기차	10%	2%	7%
16~24인승 전기차	5%	1%	4%
상용 전기차	10%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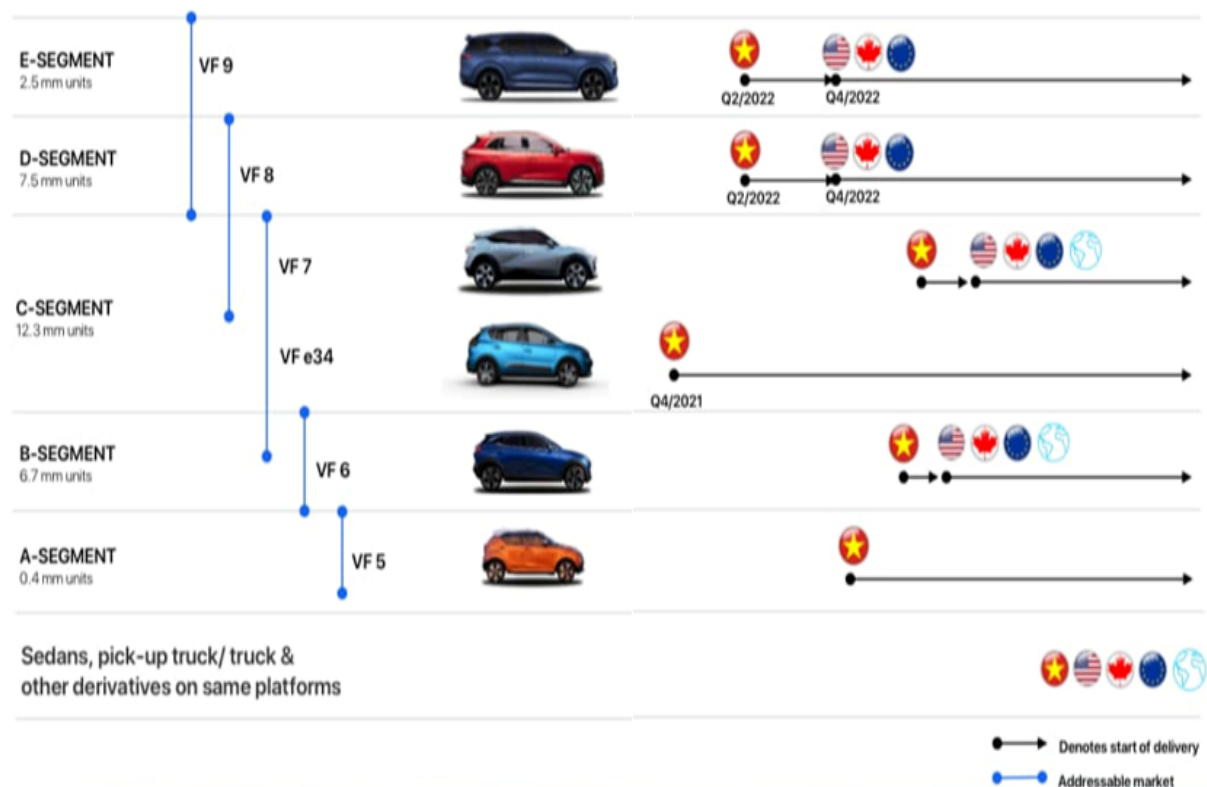
※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변경 내역('22.3월부터 적용)

하딘성, 빈그룹배터리팩2공장투자승인, 1공장은 설비설치 시작



베트남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인 빈패스트는 내연기관차 제조 및 판매를 2022년 말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연구·제조 및 내수와 수출 판매에만 집중해 빈패스트를 세계적인 수준의 전기차 전문 생산 회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이다. 이와 더불어 A-세그먼트부터 E-세그먼트까지 전 라인업을 공개했다. 빈패스트의 전기차 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11월 출시된 C-세그먼트의 VF e34를 필두로 D-세그먼트의 VF 8과 E-세그먼트의 VF 9는 2022년 2분기 베트남 시장에 출시 예정이며, 이 두 모델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2022년 4분기에 출시된다. A-세그먼트인 VF5는 베트남에 2022년 4분기에 출시되며, 해외 출시 계획은 없다. B-세그먼트인 VF 6은 2022년 말 베트남 시장에 출시되고, 2023년 중에 북미, 유럽, 세계 시장에 차츰 출시할 예정이며, C-세그먼트인 VF 7은 2023년 초 베트남 시장에 출시하고, 2023년 중에 북미, 유럽, 세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빈패스트는 내수용인 VF e34와 VF5를 제외하고, 최고급 트림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2023년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준중형 트림인 B와 C-세그먼트는 전 세계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빈패스트는 전기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북미, 유럽 시장 공략을 계획해 왔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에는 이미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곧 네덜란드 사무소도 개설할 계획이다.

<빈패스트의 전기차 라인업 및 전세계 지역별 출시 로드맵(2021~2024)>



*주: 세그먼트는 EU 기준 전장 길이에 따라 자동차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A-세그먼트는 경차, B-세그먼트는 소형차, C-세그먼트는 준중형차, D-세그먼트는 중대형차, E-세그먼트는 대형차와 비교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분류하는 자동차 크기별 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VinFast]

외신이 보는 베트남 전기차의 미래

Allied Market Research는 2027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이 8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빈패스트는 세계 전기차가 성장하는 과도기에 해외로 진출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한다. 빈그룹 회장은 2022년 초 한 인터뷰에서 빈패스트 전기차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자인, 기술, 설계 등에 있어 모두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삼고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결과, 국제적 관례에 따르면 신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7~54개월이 걸리나 빈패스트는 18개월 만에 신차를 개발하는 혁신을 이루었다고 자부했다.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자동화 전략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의 전기차를 2년 내에 만들어 낸 것이다.

포브스는 순수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빈패스트의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포브스는 렉스 리서치 선임분석가의 평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넷제로를 향해 이동 중이며, 빈패스트와 같은 신생 자동차 회사는 수 십 년간 엔진과 부품을 개발해 온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들과 경쟁하기보다 전기 파워트레인에 초점을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LMC 오토모티브 관계자의 평을 인용해 기존 내연기관 차로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브랜드와 경쟁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 타 자동차 브랜드와 차별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전문 포털인 Auto Evolution은 CES 2022에서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는 베트남 기업 빈패스트, 차세대 테슬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빈패스트를 평했다.

시사점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 약 97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중 절반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35년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바이오 연료 자동차 등의 친환경 차를 배기가스 기준에 맞게 생산할 것을 독려했다.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는 2050년까지 베트남 전기차 100% 전환을 목표로 3단계 로드맵을 세웠다. VAMA는 1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급속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2-1단계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저속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2-2단계는 2040년부터 2045년까지이며 성숙기인 3단계는 2045년부터 2050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인당 연간 GDP 목표가 3900달러에 도달하리라 전망한다.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경제가 전개될 경우 베트남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자동차 시장 역시 2022년 연초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의 전기차 지원책, 빈패스트의 전기차 100% 전환 목표와 더불어 한국 기업도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베트남 경제·정책 소식

세계의 섬유공장 베트남, 주문 감소에 따른 타격

섬유, 의류, 가죽 및 신발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산업이며 세계 시장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올해 들어 '베트남, 대미 섬유 수출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 9월까지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 전년 대비 21% 증가'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섬유 수출 관련 긍정적인 기사가 이어졌지만 업계에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남부에 진출한 한국 섬유 및 봉제 업체도 갑작스러운 주문 감소와 불투명한 미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회복세에 반등했던 섬유 수요는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 섬유 주요 수출시장

미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류난 및 재고율 증가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모기지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한하고 있다. 가스, 식음료 비용이 상승해 일반 소비자들이 쇼핑 지출을 줄이고, 상품보다는 여행, 외식 등에 지출을 늘리고 있어 패션 브랜드의 재고가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의류 수출 대목인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포함한 F/W (Fall + Winter) 시즌 주문이 예년에 비해 30~40%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 대형 유통사들은 판매 시점에 주문(Buy On Time)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줄여 나갔으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에 교란이 오자 배송이 지연되면서 더 이상 해당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재고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통업자들이 지난해 상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늘어난 운송 기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감안한 사전 대비 등으로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렸고 재고율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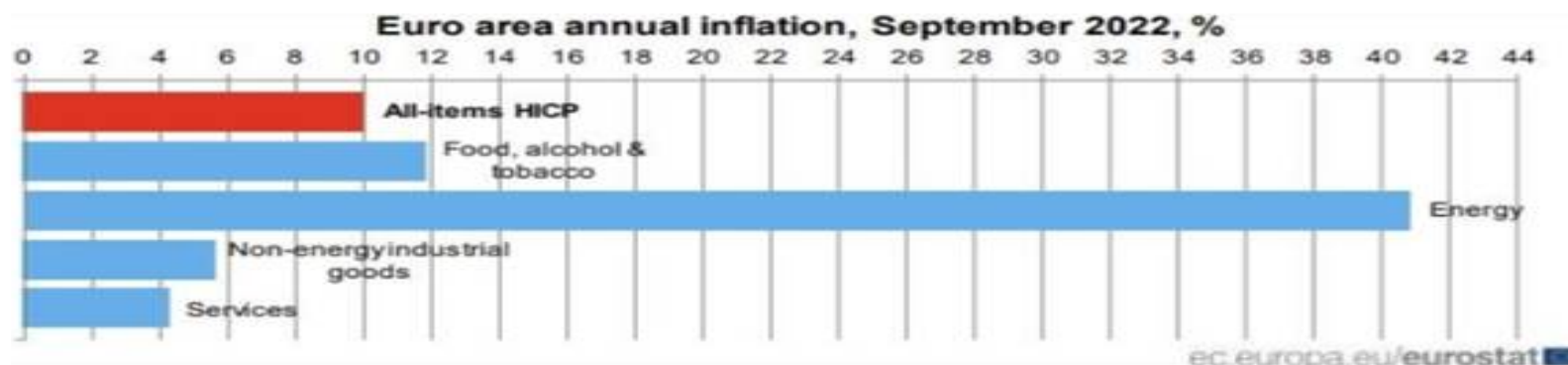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가 폭등했고, 물류 적체로 인한 미국 주요 항구 하역작업 지연도 재고율 증가의 원인이 됐다. 재고율이 높아지면서 신규 발주가 감소하고 있고, 작년 베트남의 록다운으로 피해를 본 바이어들이 공급처를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및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으로 변경한 것 또한 베트남 주문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다.

유럽: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확대

영국 및 유로존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은 올해 들어 40%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독일 7.3%, 이탈리아 7.2%, 스페인 8.0% 등 2022년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상승해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유로지역 연간 인플레이션(2022년 9월)>

(단위: %)



[자료: Eurostat]

이미 베트남 진출 섬유 및 봉제 분야 한국기업의 가동률은 30~40%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주 4일 가동으로 축소 운영되는 상황이지만 가동률이 추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류 및 신발 부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나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주문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VNDirect Research의 섬유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재활용 면섬유로 만든 셔츠, 티셔츠 등 고급의류 품목 수요가 2022년 하반기 둔화될 전망이다.

업계가 제안하는 대처 방안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는 현재 HCMC Textile, Embroidery, Knitting Association 등에서 최근 인도, 파키스탄 파트너와 협력해 주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소재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중국과 협업체 생산 자재를 신속하게 운송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미국 및 유럽 소재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현지 섬유 및 의류 박람회 정보 파악 및 배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